

‘계엄군 실탄 장착’ 사진 첫 공개

진상조사위, 5·18 관련 사진 받아
5월21일 집단발포 2시간 전 모습
장갑차 상단 12.7mm 기관총 사격
자위권 주장 허위 입증 증거자료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 계엄군이 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한 사진이 최초로 공개됐다.

실탄 장착 사진은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신군부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향후 진상조사 작업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관련 사진 3,600여매를 광주일보로부터 제공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받은 사진에는 80년 5월21일 오후 1시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기 최소 2시간 전 금남로에 있는 계엄군 모습을 담은 사진이 포함됐다.

사진에는 계엄군 장갑차에 탑재된 12.7mm(캘리버 50)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돼 있다.

앞서 조사위는 5월21일 오전 10~11시께 금남로로 이동하는 계엄군 M113 장갑차의 12.7mm 기관총에 탄통이 장착돼 있는 사진을 확보했으나 탄통에 실탄이 들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제공 사진에서 탄통의 실탄이 식별됨으로써 실탄 사진 분배가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조사위는 당시 현장에 있던 공수부대 장병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장갑차의 12.7mm 기관총에 실탄 장착과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도 교차 검증했다.

당시 11여단 62대대 소속이었던 김모 하사는 “캘리버 50인지, (하여간 그거) 걸어 놓고 실탄을 걸어놓았다”고 진술했고, 같은 대대 김모 일병은 “APC에서도 (캘리버)50을 쏘다. 훈련 받을 때 50 쏘는 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시내에서 쏘니까 소리가 울리니까, 빌딩으로도 쏘 가지고 (소리가 컸다)”라고 증언했다.

조사위는 과거 기록을 조사해 집단발포 수시간 전 실탄이 분배됐다는 사실과 5월21일 금남로에서 장갑차 기관총에 의한 발포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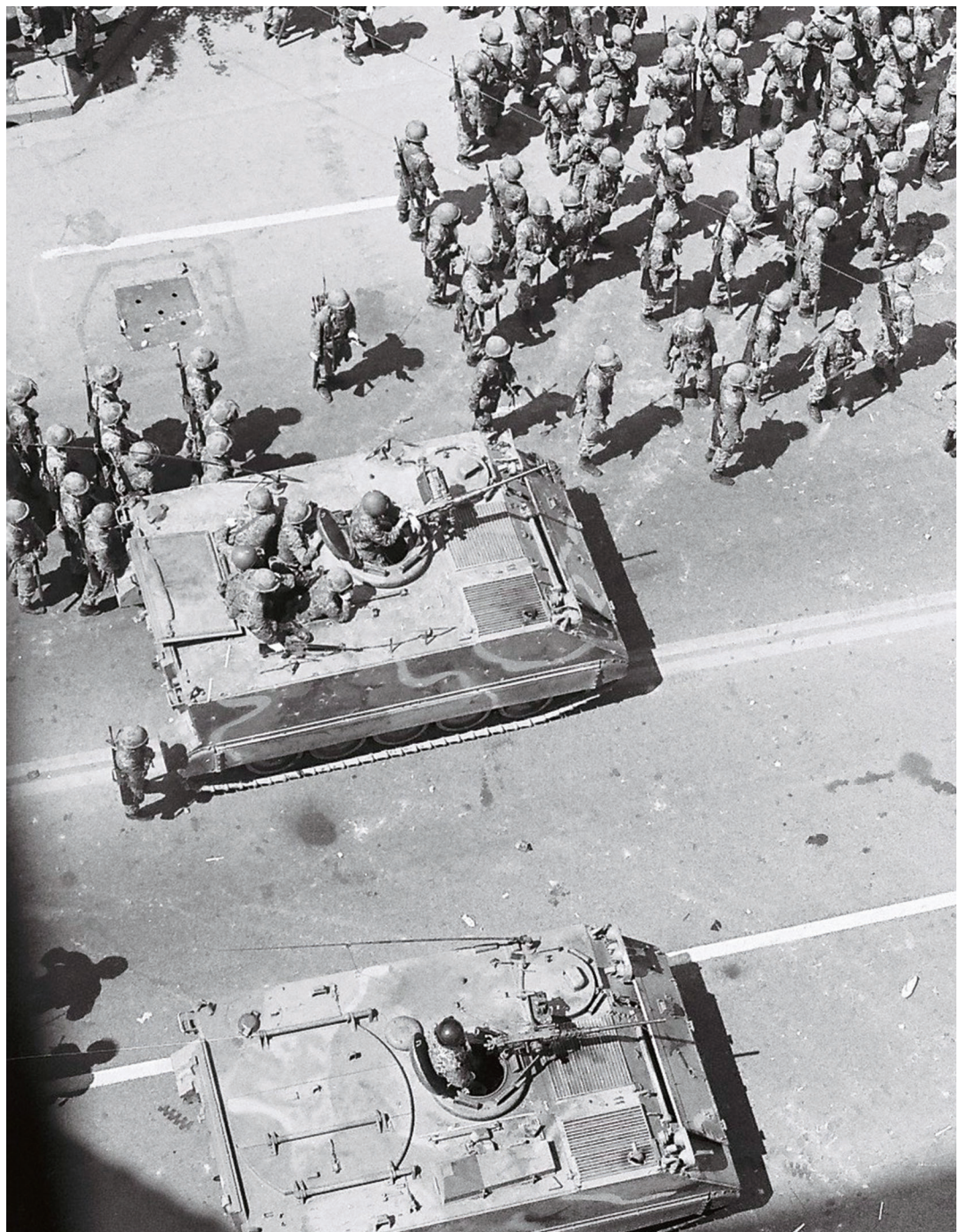
11공수여단 정모 소령은 1994년 국방부 검찰부 조사에서 5월21일 오전 10시30분께 대대본부에서 중대장 1인당 실탄 10발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김영택 동아일보 기자는 ‘10:15 실탄지급 3개 소대 앞으로 돌진’, ‘10:25 공수(탄약지급) 부대와 대학생 관광호텔 앞에서 50m 거리에 대치’라고 취재수첩에 기록했다.

당시 전교사에 근무했던 김모 장군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5월21일 오후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대장이 장갑차의 해치를 열고 기관총의 사격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위대가 장갑차로 덤벼들자 놀란 소대장이 영겁결에 손잡이를 잡아 당겨 수발이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조사위는 이 외에도 태극기에 갇싸진 시신이 찍업트럭에 실려있는 사진과 금남로 4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진 등도 조사 중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발포 상황 진상규명은 물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은폐, 왜곡, 조작 사건을 규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1980년 5월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 배치된 계엄군 장갑차의 12.7mm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된 사진. /5·18조사위 제공

“고교 기숙사 활성화, 오히려 입시병폐 조장”

광주 시민교육단체가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의 고교기숙사 활성화와 방침은 입시병폐를 조장하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결과 ‘성적만을 기준으로 고교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 권고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침해와 입사생 선발의 불평

등을 없애기 위해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사업으로 현재까지 9개 학교가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고 21개 학교가 기숙사를 존치하고 있지만 실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은 9개 학교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선 당선인은 학생들 실력을 회복한다면서 고교 기숙사를 다시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성적우수자를 관리해 입시성적을 높이겠다

는 낡은 발상으로, 해당 시책을 다시 생각해볼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소수의 입시성과로 공교육의 성과를 자랑하려는 욕망이 있는 한 성적 조작, 편법적 내신 관리 등의 반교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당선인은 왜곡된 욕망의 뿌리를 함께 하면서 그 뿌리에서 자라는 독버섯만 잘라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관료 출신 위주 인수위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사회 협치에 따른 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나라 기자

“수소트램, 무등산 아닌 광주 도심에 설치해야”

시민단체 60곳 논평

광주 환경·시민단체 60곳이 민선 7기 광주시장 직속 혁신추진위원회가 제안한 무등산국립공원 수소트램 설치에 대해 반대했다.

국립공원무등산자키기 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수소트램이 가야 할 곳은 무등산 정상이 아니라 광주의 도심이다. 무등산 수소트램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산악열차”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무등산 정상부 접근 및 여가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등산을 ‘관광상품화’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철저히 개발과 발전, 인간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이 움트고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을 쓰고 버릴 상품으로 대상화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저지대를 활용한 생태휴양형 국민여가공원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며 ”광주시는 이런 정책과 반대로 정상부 접근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입장을 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혁신추진위는 이를 전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 수소트램 설치안에 담긴 ‘친환경 운송 수단’을 통한 무등산 정상 접근로 개선’ 등 과제를 최종 제안하기로 했다.

무등산 정상 접근로 개선과 관련해서는 원효사~장불재 기존 군용 도로를 활용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수소 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홍승현 기자

‘금품수수 혐의’ 시의원 해외 잠적...경찰 추적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광주 시의원이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다.

22일 지역 정가와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시의회 A 의원이 지인 B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가 특정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의원이 연루된 사실을 파악했다. A 의원은 B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이달 2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은 A 의원이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찾고 있다. /최환준 기자

초등야구부 코치, 선수 폭행 의혹

여수에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여수 서교동 한 초등학교에서 야구부 코치 A씨(32)가 훈련 중 선수 8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신

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공을 받지 못하거나 자세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야구공을 던지거나 야구배트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8명 가운데 4명이 코치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곽재영 기자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JUVENANTE

*인삼(인삼 사포닌)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0.2%, 주름 25.9% 인위적용 실험 결과(4주 후 사용 분제) (대상: 30~40세, 31명) 시험기간: 리빙케어무등산국립공원(사립)기간: 2022년 05월 09일 ~ 2022년 05월 09일